

## 가을철에 시 한수 읊는 여유도...

저는 매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이 되면 짧은 시를 낭송하는 버릇이 여지없이 나타나곤 합니다.

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생산총괄 산하 간부들이 워크샵이 끝나고 단합대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버릇이 나타나 버렸습니다.

건배사 대신 詩 두편을 낭송했는데, 그 자리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금방 외웠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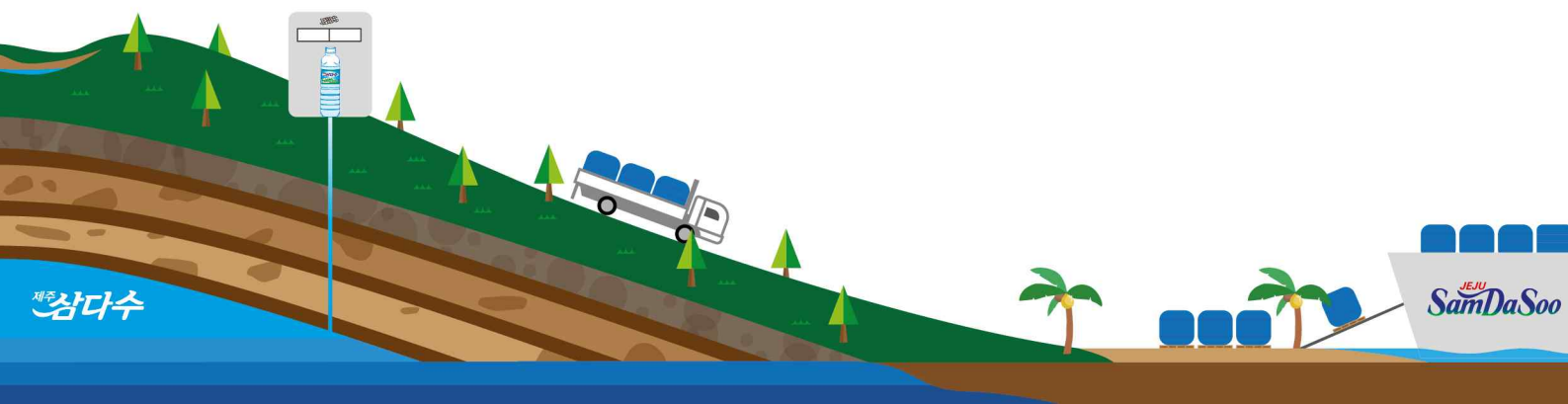
그 꽃 <고은 지음>

내려갈 때 보았네  
올라갈 때 보지 못한  
그 꽃



단 세 줄에 불과한 詩지만 그 의미는 곱씹을수록 의미심장 합니다.

한해가 얼마없어서 다 지나갈텐데, 허겁지겁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번달이 지나면 3/4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 박자 쉬고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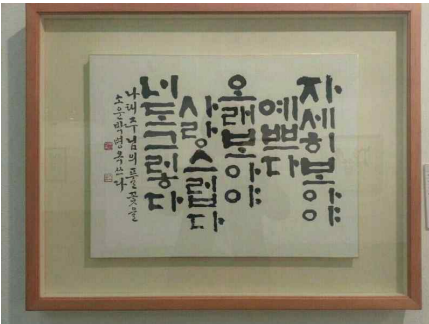


목표를 향해 도전하다보니 주위도 안돌아보고 정신없이 앞만보고 달려온건 아닌지?  
그러다보니 소통과 협업에 소홀한 건 아닌지?  
동료 상하간 갖춰야할 겸손이나 예의범절 등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?  
급하다 보니 결론과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건너 뛰지는 않았는지?  
전체만 보고 디테일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?  
뒤돌아보고 반성해 새롭게 나아가도록 조용하게 나를 가르치는 것 같은 싯귀입니다.

또 하나의 시는

풀꽃 <나태주 지음>

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
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
너도 그렇다



이 시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시입니다.  
싯귀 자체에서 풍겨오는 ‘사랑’이라는 키워드가 가슴을 울립니다.

그러자 어느 누가 이렇게 고쳐서

“얼핏 보아도 이쁘다  
자세히 보아도 이쁘다  
니가 그렇다“

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

지난주 단합대회 때 참석한 분들께서는 모두다 암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.  
그 자리에 없었던 임직원들을 위해 짧은 시 두편을 공유해봅니다.

짧은 시를 이야기하다보니, 불현 듯 아직도 읊조리는 긴 詩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.

“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~”

라고 시작하는 청마 유치환 시인의 ‘행복“과

“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탄...”

박인환 시인의 ‘목마와 숙녀’입니다

가을은 우리들에게 센터멘탈을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

가을 문턱에서 <박흥진>

나뭇잎 스스스

울음 한 번 내뱉고

하늘 물빛을 붓대롱에 담뱃 찍어

허공에 한 획 흩뿌리고 나면

마음은 갈대밭 바람에 일렁이네

가슴에 담은 불씨

푸른 잎사귀 태우고 나면

詩心,

낙엽되어 책갈피 될까?